

강진군-인재개발원 운영 ‘천원 택시’ 효과 좋네

1인당 3주간 80만원 소비 연간 13억 경제유발효과

강진군이 전남도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는 교육생과 강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천원택시사업이 읍내 상권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인재개발원을 방문한 교육생은 1700명으로 이 중 1600명이 신규자기본과정으로 강진을 찾았다. 신규자기본과정은 3주간 일정이다.

신규자기본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1인당 3주간 80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돼 연간 13억원을 강진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천원택시 이용 건수는 4676건으로 13억원 가

운데 9억3000만원 이상이 읍내 상권에서 소비됐다는 분석이다. 인재개발원이 강진읍과 떨어진 도암면에 위치해 강진읍 상권 활성화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군은 2022년 12월부터 강진군과 인재개발원, 택시운수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군이 택시요금을 보조해,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교육생 및 강사들이 10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천원 택시’를 운영해 왔다.

음식점 운영자와 운수업체측은 상권이 젊은 열기로 활기가 넘쳤고 운수업체 경영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강진읍내 음식점 관계자는 “최근 읍내 상권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었는데 알고 보니 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이었다”며 “상권이 젊은 열기로 가득차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이 일과가 끝나고 천원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원 강진군수는 “천원택시 운영을 통해 교육생뿐 아니라 택시운수업체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강진군 읍내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인재개발원 신규자 기본

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생은 1800명으로 내년 천원택시 수요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 곡성 등 인근 시·군에서 강진군 천원택시를 벤치마킹 하는 등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모집 영암군,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등

미래농업의 주축으로 부상할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영암군이 양성한다.

영암군은 ‘2024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참가자를 내년 1월3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이다.

18~39세 병역을 마친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농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쓸 기회도 얻는다. 이 정책자금은 금리 1.5%로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사업자는 신청자 서류심사와 서면·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4월에 최종 결정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농업해양정책과 농정기획팀(061-470-2371),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한다.

영암=이병영 기자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강진군, 어린이집 대상

강진군이 최근 동절기 대비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1차로 전체 어린이집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빈대 예방 관리 등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중 하절기 안전점검 미대상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4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가졌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동절기 재난(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 대응대책 관리 △시설물 및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미세먼지 대응메뉴얼 준수,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등 미세먼지 관리 현황 △급식·위생 관리 △빈대 예방 관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가졌다.

강진=김윤복 기자



최근 강진군이 동절기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펼쳤다.

강진군 제공

연말연시 이벤트 ‘풍성’

완도 해양치유센터

완도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치유센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월25일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저렴한 이용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수험생!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4학년도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은 내년 2월 말까지 베이식 프로그램(1층)은 1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1+2층의 6개 프로그램)은 1만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센터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일반인은 베이식 프로그램을 1만8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6만2500원에 이용 가능하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36개월 이상, 12세 이하) 선착순 100명에게 24·25일 이틀간 크리스마스 선물(과자 세트)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이용은 현장 발권도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완도 해양치유’를 검색하여 홈페이지(www.wando.go.kr/healing)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완도=최경철 기자

진도군, 베트남 유통업체와 100만달러 수출협약

베트남 현지 마트서 판촉행사도

진도군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유통업체 동양농수산과 10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베트남을 방문한 우흥섭 진도부군수를 대표로 구성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하노이 원마트, 박닌 플러스마트 등 진도 농수산물 판촉행사장에 참석한 뒤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앞으로 1년간 진도군 농수산물

을 베트남 시장에 100만 달러 규모 수출을 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은 울 들어 호주와 미국에 이어 3번째다.

진도군은 베트남 현지 마트에서 오는 22일까지 진도산 백미, 꽃게, 미역, 다시마, 김부각, 울금 가공식품 등 홍보와 판매 강화를 위한 판촉행사도 진행한다.

하노이의 원마트에서는 한국음식(K-food) 유행에 맞춰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의 현지공장이 있는 박닌의 플러스마트에서는 고

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의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베트남 교민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우흥섭 진도부군수는 “호주와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도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진도군 농어가의 실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신안갯벌박물관, 국내 최대 푸른바다거북 표본 전시

국제 해양 보호 생물

신안군(군수박우량)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내 최대 크기의 푸른바다거북 표본을 신안갯벌박물관에 상시 전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푸른바다거북은 몸길이 최대 2m, 몸무게 200kg까지 자란다. 등은 푸른색 바탕에 회갈색 또는 진한 갈색을 띠며, 나이가 들수록 등갑에 불규칙한 방사상의 갈색 무늬가 나타난다.

해양오염, 불법 포획, 번식지 교란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위기종



(EN)으로 등재된 국제보호종이며, 국내에서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신안갯벌박물관에 전시된 푸른바다거북 표본은 지난 8월 임자도 주민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몸무게는

100kg, 몸길이 120cm, 등갑 길이는 86cm로 대형 개체였다. 군은 사체를 인계받아 관련 허가를 받고 5개월간 과정을 거쳐 표본으로 제작하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 본 개체는 국내에서 표본으로 제작된 개체 중 가장 큰 크기 범주에 속하며, 자연에서 최소 80년가량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른바다거북을 전시하고 있는 신안갯벌박물관은 신안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 교육·홍보를 위해 지난 2006년 개관하였다. 푸른바다거북 이외에도 다양한 갯벌 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은 강진원 군수가 1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강진원 군수는 이날 국회에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강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잘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국비 확보 협조를 구했다.

국비 요청 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300억원) △저탄소 자동차 부품제작 기반 구축(미래차 부품 시범 제작 기반 구축)사업(198억원)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제8539부대 3대대) 진입도로 개설사업(15억원) 등이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의 탐방객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장시간 체류가 가능한 야영장과 저지대 숲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자원과 함께 무위사, 강진다원 등 강진의 유명 관광지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 구축 사업은 기존 공법의 자동차 부품 제조 대비 탄소배출량을 낮추고, 부품 경량화에 따른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를 높이는 자동차 부품 제조 생태계 구축이 주내용이다.

강진원 강진 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 사항을 설득해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